

교회 목표

신성한 예배
친구원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이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탄 18:4)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 3:3)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angan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성찬을 위한 시간

“...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고전 11:23-34)

다양한 성찬의 모습

전 세계의 교회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매월 혹은 분기별로 하기도 합니다. 루터교회는 두 주에 한 번씩,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거행합니다. 물론, 성경은 성찬의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찬을 얼마나 여러번 하느냐를 놓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누가’, ‘어떻게’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찬은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로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성도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그러나 모든 등록 교인들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세례나 등록에 관계없이 출석 교인 모두에게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성도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강단 앞으로 나아가 성찬을 받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성찬을 받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찬의 행위 자체가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만이 영혼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찬의 목적

그렇다면 성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 2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나를 위해서 바쳐졌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성찬을 나누는 동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 구약 시대에는 율법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끊임없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골 5:9).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이런 것입니까? 성찬을 나눌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죽음의 역사적인 중요성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의 극악한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한 흠없는 변호인이 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총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을 맞추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기념하도록 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가 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주께 잡히신 밤에(23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떡을 집어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24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십자가하신 후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2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를 쏟으시는 죽음을 당하시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요한 사건들로 인하여 ‘새 언약’이 세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신 언약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십자가에서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집니다. 이 잔을 마실 성숙한 골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의 선포,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당하신 고통 등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죽음의 피는 세상 죄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는 예배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개인적인 체험으로 다기로서 이러한 개인적인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깨끗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의 재림을 고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 재림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신음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으로 사라질 소망을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아멘!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죄 없으신 구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28).

점검과 고백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를 점검하고 죄를 고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28-31절).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성찬을 받는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일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면 절정이나 심지어 죽음 등의 심판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들과의 교제는 회복됩니다. 부디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을 따라 자신을 살피고 그 죄를 고백하시는 은총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분명하게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민감하게 만들어 각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오류를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Sermon of pastor Kim



TIME FOR COMMUNION

"...A man ought to examine himself before he eats of the bread and drinks of the cup. For anyone who eats and drinks without recognizing the body of the Lord eats and drinks judgment on himself. That is why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of you have fallen a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we would not come under judgment..." (1 Corinthians 11:23-34)

Believers all over the world celebrate communion differently; some come together weekly, some monthly, and still others quarterly. Our church observes communion bi-monthly (6 times a year), whereas the Lutherans have it bi-weekly, and the Catholics every Sunday. The Bible makes no mention of time frequency regarding communion. As such, there's no right or wrong yearly time interval in which local churches commemorate communion.

Communion variances within the local church also have to do with the 'who' and 'how' questions. Who can participate? Presbyterian denominations tend to restrict communion to only those who are baptized, other churches reserve it for members only, and still others to all believers. How is communion to be administered? Some churches set-up the communion service where the congregation comes to the altar, while others have it where they receive it in their pews. The idea to keep in mind is that communion does not save souls. Only faith in Christ has the power to do that.

What then is the purpose of communion? When we take communion, we are to remember the suffering and death of Christ,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v. 24-25). We look back and reflect that Christ's body and blood was given for us. The bread and the cup symbolize Christ's flesh and blood which helps us to really identify and think about Him. What do we think? We think of the cross, and how much the cross must mean to our Lord. John the Baptist proclaime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In Old Testament times, the Passover lamb was continually sacrificed. In New Testament times, the Lamb of God was sacrificed once and for all sin, not just for the sin of Israel, but for the sin of the whole world (see Rev. 5:9)! Christ was slain for all people. Is that the meaning for you?

When we take this communion, we have to memorize within our mind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Why was it so important for Christ's suffering? Because of sin, because of the terrible seriousness of sin. Do you understand the consequences of sin? Do you realize how awesome it is to have Jesus as your advocate? Also, we need to balance our thoughts with God's great love and grace. We need to remember that we are forgiven through Christ.

Let's take a moment to overview some of the basic messages that the Bible gives us to help us honor Christ during our communion celebration. First, Paul tells us that the Lord's last supper was started "o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v. 23). At that time Jesus took the bread from the table, blessed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v. 24).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 25). Jesus was referring to His suffering and death which was about to take place on the cross. This all important event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which is God's new arrangement with men based on the death of Christ.

At the cross, and only through the cross, was God's new covenant with humankind sealed. The incarnation of God, the body of Jesus Christ coming to earth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and suffering the degradation of human form was all for us. His death upon a cross, His blood, was the only blood that could wash away the sin of the world. Without Jesus' suffering and death, we have no hope. Through faith in Him, the crucified Christ, we have eternal hope; we have salvation; we have life! My friends, we must always remember Christ's suffering and death, but even more so during our communion. We must personalize the cross deep within our hearts, so as to open them up to His communion within, and all the tremendous blessings that follow.

We not only look back but also we must look forward.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Jesus is coming again. We must look forward to His second coming. We must think about the cross and the coming Jesus during our communion service. His coming reminds us of our groaning and His glory. Each time we have communion service, it brings us nearer and nearer to Christ's return.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n. 3:3). Amen! We've got to get clean and we are able to do so by drawing closer and closer to Him. Looking back on the price paid for our sins helps us to realize how terrible sin is. But we can't just look back, we also must look forward to the return of our sinless Savior.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so that when He appears,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shrink away from Him in shame at His coming" (1 Jn. 2:28).

The last elements of our Christian responsibility in communion are self-examination and the confessing of sin.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e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vv. 28-31). We must come to the Lord's Table in a worthy manner, which means with confessed sin; not unconfessed sin (v. 27). If we forget or ignore this aspect of communion, it may result in judgment, even sickness or physical death. Therefore, each person is to examine himself before partaking! If you search your heart, and confess your sin, you are saved from God's judgment.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n. 1:9). Forgiveness and fellowship within the family of God is restored when we confess sin. Please, we have to self-examine ourselves and confess the sins that the Holy Spirit brings to light.

Communion should keep our vision of the cross and of Christ's return clear and fresh. Also, communion should make our hearts sensitive to the personal things that detract from God's glory and require confession. Are you ready for communion?

십자가의 자람 (갈 6:14)

바울의 자람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로 인하여 소아시아, 마케도나, 아가야, 더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선교 사역으로 인하여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직접 부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엘리트였으며 당시 명망있는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받았고 헬라이도 하는 등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몬이나 하몬에서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조건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14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은 성도에게 깊은 감동과 잔잔한 여운을 줍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이 하몬이나 가몬, 직업,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 달란트, 선교업적 등을 자랑하기 보다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통 받아야 할 자신 대신 못 박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한 없는 용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율법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빌 3:6).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위대하고 역사적인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을 이겼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떠한 사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큼 놀랍고 위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자랑한 십자가를 반대자들은 수치와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십자가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기껏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의 헬레니즘 철학의 사상체계를 완성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손들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미련하게 보였으며 비합리적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고전 1:23).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바론 현대인들에게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세로 산 집이나 차, 풍족한 재산, 건강, 회사에서의 지위, 자녀들의 좋은 진학 등 외적 요인들을 더욱 자랑하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와 건강이 더 중요한 자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의 본질이며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그리스도인의 자랑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붙들며 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많은 사람과 민족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민철 전도사 (중동3부 부지도)

주간성경공부를 하며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주일에 봉사만 했지 주중 성경공부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공부의 필요성을 그리 크게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해 크리스마스 성경공부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크로스웨이 성경공부가 끝나고 다시 성경공부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마침 주간 성경공부가 개설되어 시작됐다.

처음으로 하는 주간 성경공부라서 창세기로 택했다. 창세기를 배우기 전에는 나와 관련된 일만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나의 주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창세기를 배우고 나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성경에 비추어 보게 되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과 참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 예전에는 가인과 아벨의 재사의 차이가 '죄' 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마음 속 깊이 있는 '구세주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속에는 인간의 깊은 죄성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렇듯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죄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홀로라고 생각했던 성경 인물들이 사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죄인을 구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

닫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오히려 감사했다. 인간이 한계가 없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능력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았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 봉사도 나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 후, 마음 편하게 기뻐하며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설사 내가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내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빼앗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를 통해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보면서 나 자신에 대한 회개가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구원받길 원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한 발짝씩 주님 앞으로 다가간다. 내 신앙의 성장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



최혜희 (원사, 7교구)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장	선교지	기간
12교구 2지역	정영태	카자흐스탄	7월 1일(화)~7월 11일(금)
9교구 7지역	김승곤	카자흐스탄	7월 4일(금)~7월 15일(화)
14교구 5지역	황기용	몽골	7월 4일(금)~7월 15일(화)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장	선교지	기간
10교구 7지역	최지운	몽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17교구 7지역	김연곤	카자흐스탄	6월 24일(화)~7월 4일(금)
3교구 6지역	정창수	몽골	6월 27일(금)~7월 5일(토)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장	선교지	기간
4교구 4지역	박필래	불가리아	6월 17일(화)~6월 26일(목)
14교구 3지역	이정박	몽골	6월 17일(화)~6월 27일(금)
9교구 5지역	권철	카자흐스탄	6월 17일(화)~6월 27일(금)

예수님만 아는 종교서

강현주 (의심부, 스리랑카팀 교사)

스리랑카 단기선교 후, 영적으로 풍요어 하는 속에서 하나 생겼다. 그것은 스리랑카 사람들의 종교성이다. 그들은 종교성이 대단히 깊어서 국가와 민족의 배경은 물론, 개인들도 하나같이 어떤 종교들을 갖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순박한 호기심과 서두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듣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만났던 아덴 사람들(행 17:22)을 생각나게 한다.

세상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온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이 주일에 교회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다. 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는 않더라도, 성령의 이끄심으로 예배와 성경공부와 친교의 시간을 '와서 본다'(요 1:39, 46). 복음에 빛난 자(로 1:14)인 교사들은 그들과 나눈 믿음의 열매 맺고 돌아와, 세계 모든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길 기대한다.

특히 소그룹 성경공부에서는 말씀을 찾아가며 서로간의 문답을 통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로 10:9)하며 믿음을 키워나간다. 이 시간에 그들의 헛된 종교성이 변화되어, 세계 모든 민족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깨닫길 기대한다.

영혼을 뒤흔드는 성경말씀을 통하여 이곳 여호와와 함께 살기 희망(시 92:13)한 종교성으로 예수님만 아는 스리랑카의 한사람, 한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스리랑카 민족을 위해 믿음으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땅의 그루터기 전도사들로 하나님께 청함과 태함(마 22:14)을 얻기를 기도한다.

젊은, 우리는 복음의 사도 ①

나는 교회가 단기선교를 나가기 시작할 때, 불가리아에 다녀와서 선교의 필요성을 알았다.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되었을 때도 고민 없이 당연히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처음 불가리아에 갈 때는 웬지 고생하거나 죽으리란 건다는 생각에 두려웠는데, 지금은 준비하면서서도 기대와 기쁨이 넘친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더 기쁘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기쁨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니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가리아에 갔을 때,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손뼉을 치며 기뻐한 사람이 있었다. 현지의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부탁으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인도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들었지만 오직 예수만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가승이 있었다. 하지만 한두교 사원에서 사원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서 는 냉정하다 오�히려 복음을 직접적이고 구제적으로 전할 수 있어 좋았다.

선교를 다녀와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이 되었다. 가정을 비롯한 주변도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부모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하여 믿지 않는 친척들이 모두 복음을 알게 되길 기대한다.

복음전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은 또 내팔로 단기선교를 가려고 준비 중이다. 지난 해 선교를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다만 앞에 갔던 경험들로 인해 '나는 다녀왔었으니가 잘 할거야' 하고 교만해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김연수 (대학부)

몽골 단기선교를 마치고

저희 14교구 4지역 몽골 단기 사역팀은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복서부의 '볼강'에 입성한 Ger를 대상으로 축조전도를 하였습니다. 사역기간 중 모든 팀원들이 목욕 한 번 못하고 고양이 세수나 겨우 하는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팀원 모두의 뜨거운 선교열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사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나타나니 이상한 기후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비와 우박이 내렸고, 때로는 맑았으며, 오뉴월인데도 함박눈이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예비하시고 시간마다 저희를 지켜주시며 함께 호흡해 주셨습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잠잘 곳, 사역할 곳은 물론 먹을 것과 만나야 할 몽골 영혼들도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눈이 있는 이러한 길을 지나 속소에서 도착한 우리들은 그날 숙소에서 머물고,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Ger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몽골 영혼들을 만나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이들 중에는 오랜동안 복음의 소식을 예대게 기다려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Ger에 모셔두었던 라마불교의 신상을 내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몽골과 몽골 영혼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 사역 중에 몸이 아픈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사역에만 전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팀원들 중에는 팀을 구성하기 전부터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사역 현장에서 혹시 지병 때문에 지장을 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그것은 한장 기우였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역을 잘 감당하였으니 건강한 모습으로 순천가를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 중의 한 분은 결혼 후, 23년 동안 아내와 단 한 번도 이틀 이상 떨어져 지내본 일이 없어서 10박 11일 간의 일정이 길게 느껴지리라 고 염려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 전날 밤, 그는 일주일 정도만 사역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역기간 내내 부족한 팀장을 도와 항상 기도로 성원하며 순종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 이 사역을 감당할 모든 팀원들과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김동욱 (만수집사, 14교구 4지역팀)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1)

저는 11월에 불가리아로 단기선교를 갈 예정입니다. 단기선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기도하며 나아가면 모든 일이 그 분의 뜻대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열매 맺는 분도 하나님이니 저는 단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베드로 전도회장을 맡으면서 꾸준히 전도해왔습니다. 특히 불교신자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다만 종교는 어떻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지만 교회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수의 보혈로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전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속의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직장에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곳이니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은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고 나아갑니다. 선교를 갈 때에 클라넷을 가져가 찬양전도도 할 계획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찬양으로 다가가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단기선교가 처음이라 걱정도 되지만 여태까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이 이번에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5교구 1지역장
이회호

(연정집 기자)

수련회 후기

김 욱 (청년1부)



임원으로서 보낸 마지막 수련회였다. 수련회 기간 내내 친구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회회장이라는 이유로 말씀 듣는 데서 열의 되거나 일 때문에 바쁘게 보낼 수도 있었지만 이번 수련회에서는 임원인데 누구든 말씀에 집중하라는 특면이 있었기 때문에 임원들도 최대한 열심히 들었다.

첫째 날 저녁에 시작한 목사님의 천국에 대한 설교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천국에는 영원한 통섭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 설명할 때, 나는 장한 위로를 받았고 천국 소망에 확신이 들었다. 평소 자주 들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며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둘째 날 낮에 있었던 가정과 결혼에 대한 특강 또한 정말 기대 이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반적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가정, 결혼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담이 하와를 먼저 찾았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와를 돕는 베벨로 주셨다는 말씀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했다. 동기별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녁에 이어진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섭함을 바라볼수록 현재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선교적인 삶에 대한 설교였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는 선택식 특강이 있었다. 여러 가지 유익한 특강들이 있었지만 나는 선교를 앞두고 있어 선교 특강을 들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방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 기억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실제로 선교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선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는 기도원에서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했다. 수련회를 마친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있음을 느꼈다. 서로가 동역자라는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쳤다. 말씀 안에서 하나되는 청년1부를 느끼는 수련회였다.

장학생 인터뷰 10

항상 천국일꾼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과연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젠가 방학 후, 금요일교회에 가려는데 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너 교회다니냐?' 하고 물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학교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곤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사람들이 동아리 친구들 외의 다른 친구들을 아예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저렇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크리스천이라면 구별되되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가 천국일꾼이라고 생각될 때는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단기선교에 갔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생명을 주님이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작년엔 단기선교지에서 주님에 대해 물어보지 못한 제국의 영혼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 주님이 저를 천국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살아 주님께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국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 오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생각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저를 먼저 사랑하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생애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도 그 사랑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받아들이는데,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셨으니 당연히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지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생각합니다. 이윽을 때부터 자주 들던 말씀이어서 그냥 생각 없이 넘어 갔었지만, 얼마 전에 다시 들으면서 '어찌런 저렇게 적절하게 비유를 잘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고, 주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주십니다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봅니다.

함 종식(대학부)

하늘에 있는 나의 이름

얼마 전에 청년1부는 천국에 대한 주제로 여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에서 배운 말씀 가운데 한 주절을 깊게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는 별도로 일반 제자들을 가운데 70인을 택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마저도 주의 이름으로 나가갈 때에 항복하더라'고 기뻐하며 말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0절).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의 생이 마감되고 언젠가는 분명히 주님의 품 안에 갈 것입니다. 그 날, 그 날을 고대합니다. 생행복에 기록되어진 저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시며 '수고하였노라, 선정아! 이제 나의 평안한 안식에 영원히 거하거라' 하실 그 날 말입니다. 삶의 수많은 절고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섬에 힘을 얻을 수 있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다하여서 생행복에 기록된 나의 이름이 불리는 그 때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아마도 뭇 돛이 기쁠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언어와 표현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기뻐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분은 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름이 호명될 그 날, 이 내 영혼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집, 천국!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지요. 인생의 수고가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영적 전쟁의 원동력이 되며 주를 거라 확신합니다. 옛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곤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에 든든하게 서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항상 동행하시고 옆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남에 기뻐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짐에 진정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박정현(청년1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의 근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신의 득을 위해 이용한다. 그것은 자신의 성공을 향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성도가 성공해야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부추하여 하나님께 완전히 의뢰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이 보배를 쓴 것밖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후 4:7).

우리는 군복역으로 어떤 영광도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다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격조차 없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 찬양소사"(시 115:1). 우리가 부유하면 가난하던, 뛰어난 부유하던, 건강하던 연약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 받으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으로 영광 받으신다. 만약 이스라엘이 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제를 통치하게 만들어 영광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강하게 할 때 때마다 분노하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조금 연약해지면 다른 신들의 신당을 없애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기뻐하셨다. 둘째, 우리가 회개할 때 영광 받으신다. 회개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력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저질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함과 사랑을 믿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하여 드러낼 때 영광 받으신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가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통찰함이 되셨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전 1:30-31).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를 전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왔다. 여러분이 성공과 복을 전파와 의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전모습)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11. “그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나는 이 구절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내가 이 구절을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칭이 내게 너무 거창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아니, 지금도 내 자신의 인격과 삶을 보건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칭은 너무나 거창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게는 옛 자아의 흔적이 남아 있고, 어느 때는 그것이 매우 크게 득세(得勢)하여 온통 옛 자아의 활동만 드러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살피면 때때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욥 7:24)라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이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

이런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깊이 깨달은 다음부터였다. 이번에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로이드 존스 목사의 설교를 읽으면서 동일한 진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를 때, 그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신자가 인격과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갖게 된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분 및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삶의 열매를 증거물로 삼아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물론 ‘새로운 피조물’은 그 열매를 통해서도 확인되므로 그런 작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 새로운 지위와 신분 및 관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삶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무나 거창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점에서, 또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는 은총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완전히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택복 목사)

1. 특별히 사모하는 찬송과 그 찬송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지 말씀해 주세요.
찬송가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보였으니 를 사모합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건강이 나빠져 학업을 포기하고 할 때, 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2.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모태신앙인이지는 하지만 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다’(빌 4:13)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 은혜받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제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새롭게 순종을 결심하곤 합니다.

3.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자로 섬기면서 거의 40년이 넘도록 봉사하면서 때때로 제 자신의 생각이 머리를 들지만, 그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섬기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제 경우 기도없이 찬양하면 제게도 은혜가 되지 않아 주중에도 마음 속으로 찬양을 부르며 준비합니다. 곧 그것이 저의 기도이기도 하구요.

4. 기도제목들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와 건강을 허락하시는 한 반주자로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또, 점차 악보, 수화 등요를 보강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김은정 집사
이연 찬양대 반주자

(임혜진 기자)

다음 주일 찬송

282장 “유월절 때가 이르매”

이 찬송가의 작사자인 아이작 왓츠(Issac Watts, 1674-1748)박사는 14세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해 변민하였다. 하지만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후,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1701년에 런던 마크레인 독립과 교회 목사로 초빙되어 36년간 설교하며 761편의 찬송사를 썼다. 이 곡은 성탄찬송가로 작사되었다.

작곡자는 헨리 켈블 올리버(Henry Kemble Oliver, 1800-1885)박사로 1832년에 작곡하였다.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주님의 마지막 성만찬을 회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이 그때 하신 마지막 언행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6-28).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부를 때 1,4절은 남자 성도가, 2·5절은 여자 성도가, 그리고 3·6절은 모두 함께 불러왔는데 이는 가사와 부합되는 적절한 찬양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찬양위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조용국’성도를 소개합니다

중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고 다녔던 것은 아니고 재미있게 다녔던 기억이 난다. 당시 신학생이었던 교회 누나와 성경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다. 기독교학교였기 때문에 예배시간이 있었는데 학교에 불신자들이 많고 예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재미 위주의 설교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종교에 회의가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다가 교회 다니는 누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교회 다닐 결심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 오니 마냥 재미만 있던 중학교 때와는 달리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서 성경을 알게 되니 좋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에 부담이 컸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느낌이다. 다만, 제사문제나 세상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교제하는 것 등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문제가 많이 걸리고 힘들다. 인간의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 같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시다.

(전진철)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03	차윤희	1	장년부	천명규(4)	773	한순규	12	청년부	남윤송(8)	783	김요한	19	청년1부	최종남(10)
704	김성훈	1	장년부	백성훈(1)	774	이민희	13	청년부	강희경(8)	784	김미라	19	청년1부	김석재(4)
705	이정숙	2	장년부		775	이은희	13	청년부	805 박영민	19	대학부	박근애(9)		
706	노은영	3	장년부	송영민(10)	776	김영은	13	장년부	이연진(8)	786	최효정	19	대학부	배지혜(17)
707	정승만	3	장년부	송영민(10)	777	이혜복	14	청년2부	배종택(14)	787	김서진	19	대학부	
708	장재대	6	장년부	장재복(10)	778	공홍운	19	청년2부	장연호(10)	788	김재진	19	대학부	기하경(7)
709	정영삼	8	청년2부		779	이기범	19	청년부		789	김경문	19	고동부	지은미(4)
770	정영희	8	청년2부		780	김지려	19	청년부	김순애(6)	790	이희광	19	고동부	이명희(9)
771	문종진	9	청년2부		781	허하나	19	청년부		791	최수정	19	고동부	김명진(13)
772	박옥정	12	청년2부	최순자(12)	782	마현정	19	청년부						

※ 후원회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83호 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변혜숙 (유년부 교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전에 읽었던 한 신앙서적에 신앙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한다고 쓰인 것이 기억난다. 유년부 교사를 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낀다.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도 아이들은 심어주면 심어주는 대로 뿌리든 뿌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는다. 그래서 이 황금 어장같은 유년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지, 어떻게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지 고민하게 된다. 유년부 정도면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죄책감도 느낄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인식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애 한 번 하는 성경공부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장기 결석생 전화심방 중에 어느 학부모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주중에 하는 일이 많아 피곤해서 주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끊고 나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 없으면 영양결핍이 되어버리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름성경학교가 다가온다. 교사들은 벌써부터 기도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매 주일은 물론 성경학교 때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교사에게만 신앙교육을 맡기지 말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함께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이 영적 장애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소직 믿음으로"

손송이 (소년부 전리반)

베에로나 광대가 출타기를 할때 사람들에게, '제가 아이를 업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아이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싫다고 한다.

우리가 약을 먹는 건 약사를 믿기 때문이다. 음식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믿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다고 한다. 그런데 성탄절에 아나운서들은 안 믿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 믿음이 그저 순수하게 믿는 것이다.

하지만 거짓 믿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어느새부터인가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다.

전리의 섬

'데살로니가전서 (1 Thessalon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마케도니아 지역은 눈에 띄게 화려하며 번창한 이교도의 항구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이 증명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행 17:3~4). 이들은 베뢰아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신사적인(noble-minded, 수용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행 17:11).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할 만큼 헌신적인 사람도 생겨났는데, 이름이 '아리스다코'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 동참하여 고난을 받았으며(행 19:29, 20:4),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향할 때에 동참하기까지 하였습니다(행 27:2).

한편,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과 실라를 괴롭힐 목적으로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 성을 소란에 빠뜨리며 바울과 실라를 공격합니다(행 17:5~9).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파하자, 가이사(Caesar) 외의 다른 왕을 전한다고 주장하는(행 17:7) 유대인들의 시기와 심각한 핍박 가운데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실 때,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울은 교회에 불어닥치는 핍박을 견디어 내도록 그들을 향하여 진지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기도애 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감사애 관한 언급은 살전 1:2, 2:13, 3:9, 5:18, 기도애 관한 언급은 1:2, 7:17, 5:25). 사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불같은 시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하늘을 향한 감사와 간절한 기도는 불같은 시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곤 했습니다.

다음주에 계속

김동화 목사(순천국제)

교사와 기도

박연숙 (초등부 교사)

2003년 올해는 내가 초등부 교사로 봉사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짧다면 짧을 수 도, 길다면 길 수 있는 기간이다. 부족하나마 이 기간 동안 내가 느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써보려 한다.

처음 교사로 봉사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었다.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마음을 정하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나의 마음을 아셨는지, 교사로 봉사할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마침 초등부에 교사가 급히 필요하다 해서, 나는 그 즉시 초등부로 향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한 초등부 교사, 남들은 기도도 많이 하고 결정한다는 교사를 덜컥 결정해 버려서 걱정이 앞섰다.

처음 교사를 할 때는 아이들 성경 말씀을 어떻게 재미있고 흥미 있게 전할지 고민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냈다. 이것저것 그림을 그리거나, 종이인형을 만들어 말씀을 쉽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선물도 주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갈수록 나도 지쳐가고, 주일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이런 와중에 교사 양상부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게 되면서, 초등부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교사'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교사'는 일반 교사와 하는 역할이 상당히 다르다. 교회의 교사는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내가 맡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위해, 그들의 가족을 위해, 동료 교사들을 위해, 자신의 부서를 위해, 종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교사로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 그들을 기억하며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절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내 힘으로 하려면 금방 지치기 쉽고, 교사라는 위치가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학생들을 위해 하는 매 순간의 기도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초등부 교사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항상 주님께 아이들과 교회를 위해 매 순간 기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게 해 달라고 또한 나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해 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한다.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